

## 신도증, 혜택이 펏펏~

### 조계종, 사찰무료입장 등 108가지 6월부터

조계종 신도증 하나면 전국 사찰에 무료입장이 가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108가지 혜택으로 무장한 신도증은 휴대전화와 함께 외출 시 휴대할 필수카드가 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신행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종단 신규 신도증을 4월부터 제작·발급한다. 전자인식칩을 내장해 신도증 소지자에게 생활에서 항상 쓰이는 필수품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감성 시대에 맞춰 호신

불 삽화로 디자인 된 이번 전자 신도증은 108개의 할인혜택이 이르면 6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신도증 108 혜택’으로는 △문화재사찰과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불교중앙박물관 및 성보박물관 무료·할인입장 △동국대 의료원 할인 △템플스테이 마일리지 및 할인 △종단 제휴 여행사 및 업체, 생활 체인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 시 할인 등이다. 이와 더불어 결혼·장례와 같은 경조사에 목격사

를 추진해 불교 신도로서 소속감을 고취시키게 된다.

포교원 황철기 신도팀장은 “신도증은 그동안 미비한 혜택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교부금을 내 의무를 다하는 신도들에게 권리를 찾아 조계종 소속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신규 신도증 발급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증을 소지한 불자들은 4월부터 재적사찰에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008년 12월~2009년 1월 중 가입한 신도는 재적지로 자동 재송부된다. 2~3월 신규가입한 신도는 4월 신규 발급개시 시점에 맞춰 전자신도증을 받는다.

포교원 신도팀은 “현재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 및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며 “2월 말경 기업 제휴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교원 협의 진행에 따라 전자신도증이 선보일 4월부터 108할인 혜택 중 일부가 1차로 제공된다.

하지만 새 신도증 발급 전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워낙 납부율이 저조해 교부금이 밀린 신도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대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1996년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

이 교리교육 체계화와 포교활성화를 위한 ‘신도 재적사찰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제작·발급한 신도증은 발급 첫 해 10만명, 2000년까지 200만명 등록을 목표로 내세웠다. 13년이 지난 현재 신도등록자 수는 목표치 1/5인 40만여 명에 불과하다. 매년 1만원씩 납부하는 신도교부금 납부율이 10%도 못되는 것도 밀린 교부금에 대한 종단적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번 신도증 갱신계획에는 무엇보다 체납된 교부금을 조정해주는 종단적 배려가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혜택만 늘려서는 체납피커(chemy picker)기업의 허점을 이용해 실속만 챙기는 현상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또 신도증 혜택의 본래 목적인 신행활동 장려 및 신도 교육 활성화에 대한 대안 등 종합적인 포교정책을 정비하는 물론 교부금 사용 내역 공개 등 종단차원의 재정투명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번 새 신도증 발급 계획은 조계종 신도들의 정체성과 동일성을 고취시켜 미래 한국불교의 위상을 가늠케하는 대작불사다. 새 신도증이 무늬만 바뀌는데 그칠지, 소지하는 신도들의 신심과 자긍심까지도 업그레이드 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돌아온 순백(純白) 미소** ‘백불(白佛)’로 불리는 서울 옥천암의 ‘보도각 마애보살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7호)’이 3년여의 개채(改彩)불사를 마치고 백불의 재 모습을 찾았다. 서울 옥천암(주지 정범)은 2월 12일 설정 스님(덕송총림 수덕사 수좌)을 증령으로, 원령 스님(조계종 어장)을 법주사로 모시고 ‘보도각 관세음보살 점인식’을 봉행했다. 박재원 기자

### 1拜 100원, 1燈 1000원 이웃에 보시

조계종 교구본사, ‘자비나눔 실천운동’ 결의

불교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자비나눔 실천운동을 펼친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지관)는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09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자비나눔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자비나눔 실천운동은 “가난한 이웃 중생들에게 보시행을 생활화하자”는 법전 중흥 스님의 신년교시(1월 9일 발표)에 따라 계획했다. 회의 후 교구본사 주지사님들은 결의문에서 “우리 사회는 10년 전 IMF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내몰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범불교적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교구본사가 △1등 1000원 보시 희망의 등 달기 운동 △1백 100원 모금 108배 기도 봉행 △한끼 나누기를 통한 저소득·실직가정 돕기 △청년실직자 등을 위한 희망행복 템플스테이 실시 △종무원 인턴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조동섭 기자

### 동국대, 이사장 선출 무산

동국대 이사장 선출이 무산됐다. 동국대 이사회(직무대행 영남)는 2월 13일 제24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사장 선출과 예산 승인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사장 선출 문제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에 따라 간담회로 대체됐다. 간담회에서 이사들은 2시간 가량 이사장 선출에 관해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하지 못했다. 다음 이사회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조동섭 기자

### “전통사찰 보존 ▶ 보존·지원으로”

국회, 2월 12일 전통사찰보존지원법 개정안 통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으로 전통사찰 불사와 불교컨텐츠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2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 보존과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통사찰 보존에서 보존과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통한 중증 허용 △불교전통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전통사찰문화원구원 설립

△불교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문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13일 기획실장 장적 스님이 논평에서 “이번 개정은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스님은 전통사찰문화원구원 관련 조항에 있어 최종 법안개정 과정에서 전통사찰문화원구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된 점은 아쉬워했다. 한편 12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개정돼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조동섭 기자

법구경  
악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능인향당  
영·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뒷문 02-730-6888 직영매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위리명량,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희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천년미역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조종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다들 좋아하고, 고함, 천년미역  
NAVER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얼레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도자기  
창달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

법보시 나눔마당  
하루 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서 불법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생활 속의 참선수행이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성을 밝히는 수행과 실천에 관심 있는 모든 누구나 평등한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11회 마음공부 포럼  
일시/2009년 2월 22일(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한미음선원 울산지원 주최/한미음선원 주관/한미음선원 울산지원 한미음과학원 후원/현대불교신문사, 울산불교방송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031)471-69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자연 “세상나아질때까지”으로 돌려야지” 불사 중지  
선지식을 찾아서 ▶14 지혜 스님  
김상사 해제법문 ▶8 법정 스님  
▶19 '원담 대중사 추모 1주기 맞아 선필 전시회' 함께가요 강의실 이현정  
▶23

용문사 운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들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6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운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산 장경각인 운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운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절친 살기가 힘들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운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양없는 공덕 쌓으시고, 운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용문사 오시는 길  
버스: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함창 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대승사 10분소요, 김용사 30분소요, 용문사 50분소요, 명봉사 40분소요, 부석사 50분소요, 청량사 30분소요, 봉정사 30분소요, 장안사 30분소요, 보문사 30분소요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 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